



# 에덴뉴스

2017년 11월  
통합 11-69호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행복 칼럼2017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5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07 에덴 마당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 FOCUS 이달의 포커스



## 에덴요양병원의 가을 전경

306호 신미정 님 남편 분이 취미용으로 보유한 드론(Drone)으로 에덴요양병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우리 눈높이에서 촬영한 사진과는 다르게 좀 더 높은 곳에서 본 에덴은 평소에 보고 느낀 것보다도 더 아름답기만 한다.





## NEWS 에덴의 소식

### 뉴스타트 캠프

지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뉴스타트 캠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몸과 마음이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증가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뉴스타트 캠프는 한 주 동안 본 병원 별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몸과 마음이 새로움을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총 네 차례 진행했다.



### 족욕탕 개장

지난 2016년 연말에 1층 수치료실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더운 날씨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족욕탕이 10월 16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족욕탕은 겨울철 환우들이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이 증진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민한 결과물이다.



### 경기소방대회 참가

경기소방대회에 에덴요양병원이 참가했다. 남양주시 소방서의 요청으로 에덴요양병원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참가한 대원들의 활약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 부서장 워크숍

지난 10월 26일, 27일 이틀 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병원 발전방안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부서장들은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토의를 이어갔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부서장들이 함께하는 시간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증가되어 병원 발전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직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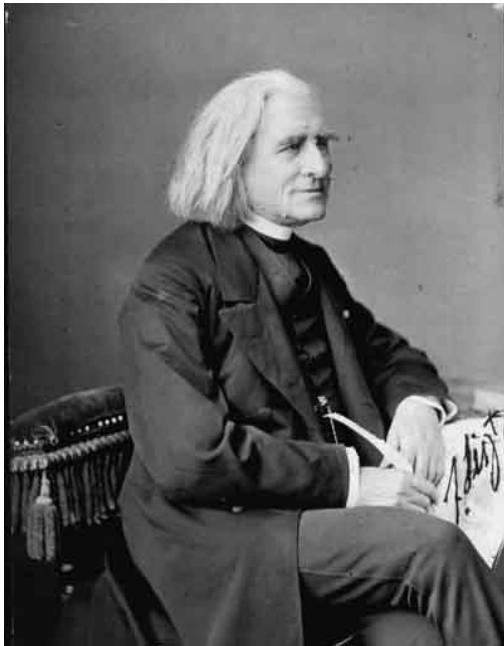
♥ 환영합니다 ♥

김미라(간호부) 11월 01일 부  
홍선향(간호부) 11월 15일 부  
권정희(간호부) 11월 16일 부



## 행복칼럼[6] 원목실장 류태희

### “프란츠 리스트의 용서”



프란츠 리스트(1811년 ~ 1886년)

오스트리아의 외딴 시골 라이딩(Raiding)에서 10월 22일 태어났다. 아버지는 대단한 음악 애호가였으며 아버지의 영향으로 프란츠도 일찍부터 음악과 친해지고 9세 때 피아노 연주회를 열었다. 그 성공에 의해 교장의 귀족으로부터 6년간의 학자금을 보증 받고, 빈에서 체르니(Carl Czerny, 1791~1857)에게 피아노를, 또 살리에리에게 작곡을 배우게 된다.

1823년(12세) 빈에서의 제2회 연주회는 베토벤(독일)이 참석해 축복을 받았고, 또 같은 무렵 슈베르트(오스트리아)에게도 소개된 적이 있다. 아버지와 함께 파리에 가서 음악원 입학을 지망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결국 작곡만을 개인 교수에 의해 배우게 되었다. 한편, 이듬해의 런던 여행을 시발로 해서, 이후 파리를 거점으로 하는 연주 여행이 정기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리스트(헝가리)가 음악사에 남긴 최대의 공적은 바그너(독일)와 함께 낭만주의 음악을 크게 빛내고 나아간 점에 있다. 그의 인생을 다채롭게 채색하는 이 행동성은, 다소 화려하고 외면적이면서도 왕성한 설득력을 가진 교향시적인 작품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리스트(헝가리)가 교향시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주요작품 단테 교향곡, 파우스트 교향곡, 교향시 전주곡, 교향시 타소 비탄과 승리, 교향시 마제파, 피아노 협주곡 제1번 E플랫장조(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제2번 A장조(협주곡), 죽음의 무도, 헝가리 환상곡, 초절 기교 연습곡, 파가니니 대연습곡, 피아노 소나타 b단조(독주곡), 헝가리 랩소디, 사랑의 꿈 등이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한번은 음악가 리스트가 어느 도시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리스트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는 한 연주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으며 그 연주자의 약력을 읽어 보니 리스트의 문하생이라고 씌어 있었다. 리스트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이름의 제자는 기억나지 않았다. 한편 연주회를 준비하던 그 무명의 연주자에게 리스트가 그 도시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밤 늦게 연주자는 창백한 얼굴로 리스트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청하며 말하였다. “저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울 만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주 실력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 연주회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저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주회는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과의 말을 들은 리스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찾아온 그 무명의 연주자를 따라 오라고 하고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갔다. 리스트는 당황해 하는 그에게 앞에 놓여 있는 피아노를 연주해 보라고 했다. 연주자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고 나자, 리스트는 여기저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교정을 해주었다. 얼마 동안 가르친 후에 리스트는 무명의 연주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에게 배운 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정대로 연주회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스승인 나 리스트도 그 연주회에 찬조 출연할 것이라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리스트가 찬조 출연까지 한 그 연주회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무명의 연주자도 리스트의 제자로서 명성을 떨치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 무명의 연주자가 사람들에게 ‘리스트의 제자’라고 속인 것은 잘못됐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리스트에게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은 그에게 성공적인 연주자의 기초를 놓게 한 것이었다.

세계적인 음악가 리스트도 자신의 제자라고 속임수를 쓴 무명 연주자를 용서하고 즉석에서 피아노 연주법을 지도하여 제자로서의 명분을 살려주고 또한 스승으로서 찬조 출연까지 하여 성공적인 연주회를 하게 한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배울만한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용서와 관용의 정신인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은 질병 회복과 치유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임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된 이웃의 실수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 6:12-15)



## STORY 치유스토리

### 17년 만에 찾은 행복

신미정

어느 날 갑자기였다. 너무도 갑자기 찾아온 불행! 발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가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다. 2002년 당시 치과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나는 그 진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이해했다. 자가 면역질환이고 잘 낫지 않는 난치병, 자가 면역수치가 높으면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도 남편에게 고맙기만 하다. 그런 상황에서 결심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은 나날이 더 심해져 가고 온 몸 관절로 번지면서 관절마다 물이 차고 혹처럼 부어 오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통증이 하루 종일 계속됐다 무릎을 꿇을 수도 손을 접을 수도 없었다. 그래도 남편에게는 최대한 건강하게 보이고 싶어 거동조차 힘든 몸이지만 퇴근시간에 맞추어 집도 치우고 밥도 했다.

신혼3년 간 제대로 걸지 못해 외출할 때는 남편이 업고 다녔다. 운동하기 위해 목발을 짚고 하천을 건다. 보이는 잡풀도 약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관절마다 퐁퐁 붓고 숨 막히는 통증 앞에서 한계를 느꼈다.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어느 날 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혹시 내가 자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 이 말에 남편은 목놓아 울었다. 그때부터 남편은 열 일을 제쳐두고 류마티스 관절염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수소문 하기 시작했다. 내가 비로소 숨을 쉬게 된 것도 남편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것만이라도 살 것 같았다. 조금 살만해짐에 따라 간호사로 재취업했다. 비록 하루 종일 통증으로 힘들지만 일에 몰두하다 보면 통증을 잊을 수 있어 좋았다.

치과병원에서 일하던 중에 또 다시 당황스런 일이 생겼다. 혈변으로 인해 찾아가 병원에서 검사결과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이 이상 항진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면역을 억제해야 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을 치료하려면 면역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반되는 두 질병 앞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가 4년 후인 지난 2016년 12월 5일, 근무 중에 대장 내시경검사를 했던 병원에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검사결과 림프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여보 나 암이래"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원망했다. 나는 남편의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다. 내 생명 절반이 줄더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어렵게 신앙인의 길로 인도한 남편이기에 그런 모습은 암 선고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남편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며 기도 올리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후련해지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

현재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지긋지긋한 통증도 혈변도 림프종도 모두 사라졌다. 항암의 효과도 방사선의 효험도 아닌 뉴스타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에덴요양병원의 선택으로 인해 주어진 놀라운 변화로 지난 4월 14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을 행복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남은 소망이 있다면 아기를 갖고 싶다. 불가능한 암도 해결되었으니 임신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금 나에게서는 두려움이 없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같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이 크다.



**FOOD** 계절을 대표하는 건강 식품



**무순[Radish sprouts]**

무의 종자를 치밀하게 뿌리고 암조건 하에서 발아·생육시켜, 배측(종자와 자엽 사이의 신장 부분)을 10cm 정도가 될 때까지 늘린다. 수일 후, 발아시킨 무에 빛을 쬐여 자엽부에 엽록소를 발현시킨 것이 무순이다. 무순은 간이 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이전부터 생산하여 왔지만 근년 옥내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손쉬운 발아채소로 보급되었다. 배측이 희고 아름답게 신장하는 것, 자엽이 크고 녹색이 선명한 것 등이 좋은 품종으로 쓰이지만 대개 재배하면 뿌리가 비대하게 되어 무가 된다. 자엽의 신선한 녹색과 배측의 백색 및 짜릿한 매운맛이 무순의 특징이다. 매운맛의 정도는 쓰는 품종이나 재배조건에 의해서 변화한다.

영양 성분으로는 비타민A와 C, 칼슘, 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파종한 뒤 7일째가 되면 비타민C의 함량이 최고치에 이른다고 한다. 우유와 비교하면, 비타민A는 4배, 비타민C는 29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칼슘 함량은 감자의 10배이다. 효능으로는 열을 제거하고 몸의 부기를 가라앉히며, 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소화를 도와주는 아밀라아제 작용이 있어 고기나 회를 먹을 때 곁들여 먹으면 좋다. 생체에 마요네즈를 발라 먹기도 하고, 장에 찍어 먹기도 하며, 다른 채소와 혼합하여 녹즙으로 먹기도 한다.

**무순의 효능**

**빈혈예방** 무순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을 예방해 주고, 임산부의 입덧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

**피부질환 개선** 무순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슘, 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멜라닌 세포의 합성을 차단시켜 주어 피부미용에 아주 효과가 좋다.

**다이어트** 열량은 얼마 되지 않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준다.

**혈액순환 개선** 무순에는 비타민A, 칼슘, 카로틴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의 흐름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며, 뼈와 치아 건강에도 좋다.

**부종제거** 무순은 부종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무순으로 만든  
**에덴의 항암채식요리**



무순 밀전병

**레시피 보러가기**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FIGHTING! 파이팅 릴레이 간호부장 김정열

환우를 위한 기도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 가고  
싱그럽게 웃어 주는 파란 하늘  
지는 꽃도 눈이 부신 가을을 주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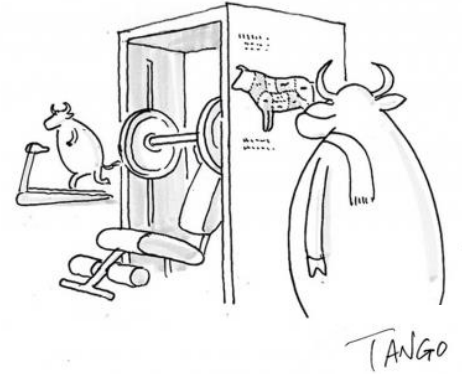
그동안 흘린 눈물과 고통,  
긴 기다림과 간절함으로 보낸 지난 시간들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무엇인가 나누고픈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 화이팅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김정열 간호부장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김혜순 영양과장님'입니다.

## 웃어보아요~



## 수기공모

에덴뉴스에서  
환우분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채택된 글은 에덴뉴스에 기재되며,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상품권 및 기념품을 드립니다.  
환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유형 ++++++

- 에덴에서 경험한 행복이야기
- 가족, 환우를 향한 사랑의 편지
- 감동을 주는 병실 에피소드
- 그 외 자작시나 수필 등

문의 홍보기획실 ☎610

## 칭찬합시다

홍영주 조무사님을 칭찬합니다.  
아침마다 밝은 모습으로 방문하는 조무사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늘 긍정적인 언어와 믿음으로 하루를 힘차게 기쁘게 출발하게 해 주시  
는 분, 홍영주 조무사님을 칭찬합니다.

- 210호 김복순 -

박은진 간호사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친절이 몸에 배어 있고요, 말 한마디마다 환자  
에게 안정을 주며, 주사 역시 고통 없이 잘 놓아 줍니다. 아무튼 최고의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107호에선 전부 생각합니다.

- 107호 김창원 -

김미정 간호조무사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명랑하고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환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어 할 때, 따뜻한 위로의 말과 긍정  
적인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 112호 남궁종희 -

차춘화님을 칭찬합니다.  
힘든 항암을 맞으면서도 주위에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는 멋쟁이 언니!  
차춘화님을 칭찬합니다.

- 211호 권오형 -

윤정섭, 홍영주 선생님들을 칭찬  
합니다.

에덴에 와 계신 환자들이나 실버  
가족, 온 교우들에게도 항상 온화  
한 표정과 친절한 마음, 성품을  
본 받고 싶어서 정말 칭찬을 드리  
고 싶습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특히, 대둔산 여행에서 거동이 불  
편한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을 보  
고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항상 에덴뉴스를 만들어 보내주시  
는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 108호 이춘희 -





### 편집후기

올해는 유난히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절로 탄성과 감탄의 소리를 발하게 됩니다. 아울러 환우들의 움직임도 더 활발해지고 들로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푹 가벼워 보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병실 창문을 통해 앞 산을 바라보면 하루 하루 다르게 물들어 가는 단풍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환우들의 몸과 마음이 감동으로 물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

- 에덴뉴스 편집장 행복돌쇠

에덴요양병원은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홈페이지 [www.edenah.com](http://www.edenah.com)
- 블로그 [blog.naver.com/edenah](http://blog.naver.com/edenah)
- 유튜브 [www.youtube.com/user/TVEdenah](http://www.youtube.com/user/TVEdenah)
-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enhospital](http://www.facebook.com/Edenhospital)
- 트위터 [twitter.com/Edenhospital](http://twitter.com/Edenhospital)

검색창 에덴요양병원 ▼

절 취 선

### 틀린그림찾기 (10군데)

이름 :                      호실 :                      호

♥ 틀린그림찾기 정답, 칭찬의 글을 홍보기획과로 보내주시면 매월 1분씩 추첨하여 매점상품권을 드립니다.

♥ 지난 호 당첨자  
- 107호 김창원, 211호 권오형, 112호 남궁종희, 210호 김복순

(                      )님을 칭찬합니다.  
- 칭찬사연을 자세히 남겨주세요

---



---



---



---



---



---

